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재 영
(공주대학교)

1.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고, 여기서 교사를 넓은 의미의 환경교육 전문가라고 할때 지난 30년의 환경교육 역사에 있어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의 대략적인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2002년 발간된 '21세기 한국의 환경교육(최석진 외, 2002)'의 각론 부분 중 '환경교육 담당자 양성 체제의 개선', '환경교육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현황 및 개선 방향', '환경 전문인력 양성의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2. 환경교사 양성과 임용

1) 과 거

제5차 교육과정까지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은 분산적인 방법만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87년에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관련 내용을 '국가 사회가 강조하는 8개 중점 사항'의 하나로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교과를 담당할 교원 양성과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했다.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이 작성되면서 환경과가 독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교사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사 양성은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기적 대책으로서의 환경과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한 현직 교사의 재교육 방법, 환경관련학과의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방법, 환경교육과를 설치하여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이다.

1994년 겨울방학동안 이화여대에서 처음 시작된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는 최근까지 계속되어 2003년 7월 현재 1,520명이 연수를 마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996년 처음 3개 사범대학에 환경교육과가 설치되어 환경 전공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5개 대학에 환경교육과가 설치되어 있고, 10여개의 교육대학원에 환경교육 전공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연수원에서는 지난 몇 년간 현직 교사에 대한 환경 연수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연수과정의 다양화를 계획, 추진하고 있다.

2) 현 재

군입대자 등의 변동 요인이 있으나 2004년 현재 전국 5개의 환경교육과에서 매년 약 100여명의 환경교육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국에서 환경과를 선택한 중·고등학교의 수는 939개교로서 전체의 18.9%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도의 22.7%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추세이다.

<표 1> 2003~2004년도 전국 중고등학교 환경과 선택 현황

| 구분/년도 | | 2003 | 2004 |
|-------|-------|-------|-------|
| 중학교 | 총학교수 | 2,844 | 2,858 |
| | 선택학교수 | 433 | 368 |
| | % | 15.2 | 12.9 |
| 고등학교 | 총학교수 | 2,023 | 2,071 |
| | 선택학교수 | 672 | 565 |
| | % | 33.2 | 27.3 |
| 계 | 총학교수 | 4,867 | 4,929 |
| | 선택학교수 | 1,105 | 933 |
| | % | 22.7 | 18.9 |

※ 2004년 10월 현재기준

2003년 7월 현재 전국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총 1,284명이며, 이 중 전공 교사가 57명(4.4%, 기간제 포함), 부전공 교사가 500명(38.9%), 자격무이수 교사수는 727(56.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환경 교사수는 5개 교육청에서 총 56명에 불과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05년에는 전국 모집인원이 1명에 불과하여 교원양성과정의 운영과 추후 학생선발에 있어 심각한 문제 상황이다.

<표 2> 중등학교 환경과 교사 임용시험 모집 인원

| 교육청 | 경기도 | 충북 | 충남 | 대구 | 경남 | 계 |
|------|------|----|----|----|----|----|
| 모집인원 | 2000 | | 3 | | 2 | 5 |
| | 2001 | | | 3 | | 3 |
| | 2002 | 5 | | 1 | 3 | 9 |
| | 2003 | 10 | 2 | | 4 | 16 |
| | 2004 | 20 | 3 | | | 23 |
| | 2005 | | | 1 | | 1 |
| | 계 | 35 | 5 | 8 | 7 | 2 |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환경관련학과를 졸업하면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는 졸업생이 연간 약 1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1) 과 거

1990년대 이전까지 사회환경교육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대중매체를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환경홍보와 분쟁 지역에서 주민과 연대하여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의 주민 의식화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환경홍보의 주체는 주로 관에서 주도한 반면, 주민 의식화로서의 환경교육은 시민환경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 넓어진 시민단체 활동의 지평 속에서 환경학교 등의 형태로 시민에 대한 직접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환경학교 교육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론적이고 어렵고 어떤 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각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화교육을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1991년 낙동강 폐놀 오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환경교육은 이론 중심, 지식 중심에서 체험 중심, 생명 중심, 감수성 중심의 교육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과 실천보다는 관심과 재미에 더 강조점을 둠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환경해설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육전문가(해설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 시기에는 현장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2) 현 재

1998년에 현 한국환경교육연구소(KEEPER, Korea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and Research)의 전신인 환경교육정보센터에서 교보생명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최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1999년 실시한 “전국 환경교육 지도자 워크숍”은 중앙행정부서가 체험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 계기가 되었고,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시작한 현장중심의 실천적 체험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국의 일선학교,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간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교육에서 체험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인호 외, 2004). 1999년에는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숲해설가 양성과정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은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주제별 사회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숲해설가 혹은 숲체험 지도자 양성과정의 현황을 예로 들면 다음의 표와 같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양성과정이 진행중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단체는 현장운동의 경험과 외국에서 도입된 환경관련 이념과 이론으로 계몽적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전문가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민학교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강좌 프로그램은 환경단체에 일하는 간사들에게도 학습과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표 3> 숲 해설가 혹은 숲 체험 지도자 양성과정 사례

| 운영 단체 | 양성과정 명칭 | 기간 | 특징 |
|---------|--------------------|--------------------------|---------------------------|
| 숲해설가협회 | 숲아카데미 | 년 4회 2개월 과정 20강좌 주 2회 | 심화과정 운영 |
| 한겨레문화센터 | 숲생태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 | 20강좌 | |
| 생명의 숲 | 숲체험 지도자 양성과정 | 20강좌 | 방학중 교사 대상의 학교숲 직무연수 병행 |
| 천리포수목원 | 식물전문가 양성과정 | 1년 | 전원 기숙사 생활 교육보조비 지급 |
| 신구대학교 | 환경해설가 양성과정 | 15강좌 | 직무분석에 기초한 체계적 과정 추구 |
| 충청북도청 | 숲해설가 양성과정 | 26강좌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연계하 여 운영 |

* 출처: 국립수목원(2003) 산림 환경 교육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들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 학습과 꾸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참여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이제 가르칠 사람을 길러내기 시작했다. 시민 지도자와 자원봉사자의 양성은 그 파급 효과란 점에서 기존의 불특정한 시민 대상의 강좌와는 전혀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다. 바로 기하급수이다.

왜 환경단체들이 지도자 양성 과정에 몰두하게 되었는가? 즉, 양성과정을 추진하는 단체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직관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지적한다면,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지도자 양성과정은 직접적인 회원 확보의 기회이며, 간접적인 단체 홍보 및 2차 회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자원봉사자의 확보를 통한 운영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의체의 교육사업이 지도자 양성과정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로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 영역이 되고 있다.

반대로, 양성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포함하여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환경해설 프로그램이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어떤

것들일까? 후속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들에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심각한 래저, 즉 전문가 추구형 래저문화의 시작, 학습과 놀이를 겸한 새로운 여가 패턴의 부각,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 웰빙 바람을 타고 온 자연체험 또는 자연친화적 생활의 추구, IMF 이후 조기 퇴직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는 인구의 증가, 그리고 여기에 앞서 지적인 시민단체의 내적 필요성이 맞물려서 붐을 이루는 것으로 짐작된다.

길동생태공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는 자원봉사자 양성과정과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경기도의 환경단체들은 공동의 연수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구대학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환경해설가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양성과정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4. 미래를 위한 제안

1) 학교 환경교육

○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현재 무학년 1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환경과의 교과과정을 2년 혹은 3년 과정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시수가 모자라 환경 전담 교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고, 프로젝트 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 이렇게 복수학년의 교과과정으로 개편하려면 중등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이 바뀌어야 하고, 교과서가 새로 집필되어야 하며, 현직 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수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변화한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교육학회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관심 및 지원이 요구된다. 학회는 늦어도 2005년도 상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약 60%에 이르는 무자격 환경담당 교사를 자격을 갖춘 전공 교사나 최소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자격 교사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양성과정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기회균등권 혹은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최종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위임되기 전에 시급히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과의 교과과정을 본래 취지에 맞도록 보다 간학문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으로 개정하면서 이에 부응하도록 교원 양성과정을 보완하여 차별화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사회 환경교육

○ 사회환경교육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며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민간의 자격증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6대 국회에서 추진

되다가 계류된 채 사장된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제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자격증 제도의 도입의 양성과정의 난발을 억제하고 지도자의 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 단위의 자격증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미국환경교육협회(NAAEE)에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범 주(州)적인 자격증 혹은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CONE이라는 조직을 통해 많은 자연체험교육 관련 자격증 혹은 인증제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신뢰성 있고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사회 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무분석, 양성과정 개발, 교재 및 매체의 개발, 자격증 취득 후 진로 개발, 민관학 공동의 협력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 작은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 양성과정이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의제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의제의 교육사업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합목적적인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은 물론 평가를 어렵게하고 있다.

3)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연계

- 사회환경교육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도 청소년의 발달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학교환경교육은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사회환경교육에 의존함으로써 내적 역량 강화에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 과거에 비해 두 영역 사이의 교류와 의사소통이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며, 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관계도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의 학교숲 조성 및 활용 지원 사례 분당환경시민모임의 경우 상탑초등학교 지원 사례, 천안환경운동연합의 송남초등학교 거산분교 지원 사례, 환경정의의 중등학교 환경클럽(동아리) 지원 사례를 들 수 있다.